

강예원, 앞트임 복원술에 만족…"이게 내 얼굴, 알아봐 달라"

등록 2026.05.13 09:37:42



[서울=뉴시스] 배우 강예원이 앞트임 복원 수술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. (사진=유튜브 채널 '강예원' 화면 캡처) 2026.05.13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강주희 기자 = 배우 강예원이 앞트임 복원 수술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.

지난 11일 강예원의 유튜브 채널에는 '앞트임 복원' 비하인드, 드디어 다 풀니다'라는 제목의 영상이 개됐다.

영상에서 강예원은 절친을 가리키며 "정확히 이 친구 덕분에 눈 앞트임 복원을 했다"고 말문을 열었다.

그는 "내가 '노빠꾸 탁재훈'에 나가서 친한 동생의 권유로 복원 수술을 받았다고 하니 '동생이 잘못했네' '동생이 인생 망쳤네' 등 욕이 엄청났다"고 떠올렸다.

이어 "수술 전 이 친구에게 싸이월드 시절 내 20대 사진을 보여줬는데 '언니, 이때가 훨씬 나아. 눈을 원상 복구해야 할 것 같아'라고 하더라. 앞트임이 잘 됐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친구의 말을 듣고 상담을 받게 됐다"고 밝혔다.

강예원은 "그때 급해서 실수한 거였다. (눈 앞을) 너무 터서 점점 물리는 느낌이라 무서웠다"며 "방법이 없어 이대로 살기로 한 거였는데 바꿀 수 있다고 하니 희망이 생겼다"고 털어놨다.

그는 "내가 봐도 클로즈업이 될 수록 연기할 때 너무 거슬렸다"며 "덕분에 옛날 얼굴을 찾았다. 내가 새롭게 인생을 살게 기회를 준 친구"라고 고마움을 전했다.

이에 친구는 "그 얼굴로 '해운대'를 찍지 않았나"라고 말했고, 강예원은 "이게 제 얼굴이다. 저 좀 알아봐 달라. 혼자 떡볶이집에서 서서 어묵 먹고 막 돌아다녀도 안 쳐다본다"고 밝히 웃음을 자아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zoey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